

『璿源系譜紀略』英祖1年本 刊行過程考*

A Study on the Process of Publishing the King Yeongjo's 1st Year
Edition of *Sonwon-kyebo-kiryak*

윤 인 현(Yoon, In-Hyun)**

◁ 목 차 ▷

- | | |
|-------------------|-----------------------|
| 1. 緒言 | 3. 刊行過程 |
| 2. 刊行 當時의 史的 背景 | 3.1 교정청 설정 이전의 작업 |
| 2.1 당시의 사회상 | 3.2 교정청 설정 이후의 작업 |
| 2.2 당시의 정치적 상황 | 4. 結言 |
| 2.3 당시의 왕즉 사정 | <참고문헌> |

< 초 록 >

본고는 『璿源系譜紀略』 영조1년본의 刊行過程을 밝힌 것이다. 이 판본은 영조 즉위년(1724) 10월 26일에 간행을 시작하여 영조 원년(1725) 8월 28일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완성하였다. 이조판서 李肇의 건의로 중부시에서 간행을 시작하여 처음에는 '보략어첩'만을 수정하기로 하여, 초초, 중초, 부판정서, 판각, 인출, 중초어람을 거쳤으나 세자책봉, 옹주봉작, 신분변동자 등의 추가 수정으로 인하여 간행업무가 복잡해졌다. 그래서 영조 원년 4월 3일에 교정청을 설치하고, 옹행절목을 마련한 후, 다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진상, 철국하여 완결하고, 후에 포상과 반사를 행하였다. 숙종46년본은 55건을 회수하여 새로운 판본으로 바꿔주고, 경종3년본은 155건을 수정개장하여 환급하고, 영조1년본은 225건을 간행하였다. 결국 영조1년본의 전체 간행부수는 445건이었다.

要語: 선원계보기략, 선원보략, 목판인쇄술, 왕즉, 족보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대전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 대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oonih@daejin.ac.kr)

접수일: 2011년 6월 5일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8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18일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process of publishing the King Yeongjo' 1st Year Edition of *Sonwon-kyebo-kiryak*. The publication of this edition took about ten months from October 26, 1724 to August 28, 1725.

At the beginning the process of publishing was as follows: 1) Yi Jo(李肇), the Chief of the Civil Office Board(吏曹判書), made a proposal to publish *Sonwon-kyebo-kiryak* to King Yeongjo, 2) King Yeongjo approved only to modify *Boryak-eocheop*(譜略御牒), 3) the review of the first and second drafts, writing on the base copy, engraving of woodblocks, preliminary printing of the book were completed in order, and 4) a print of the second draft was presented to the king.

However, because of some additional corrections, including the enthronement of the Crown Prince, the ennoblement of a princess, a change in some people's social standing, etc., the publishing of *Sonwon-kyebo-kiryak* became complex. Therefore, in the 4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Gyojeongcheong, the Office of Printing and Proofreading, was established, the executive rules for administering the publication were determined, and *Sonwon-kyebo-kiryak* was finally published through the repetition of an entire process. King Yeongjo awarded the people involved and distributed the books to the royal families and high officials.

Later 55 sets of King Sukjong's 46th year edition were collected and replaced with this new edition. 155 sets of King Gyeongjong's 3rd year edition were also collected and returned with some revisions. Since 225 sets of this new edition were printed, *Sonwon-kyebo-kiryak* published in first year of King Yeongjo's reign totaled 445 sets.

Key words: *Sonwon-kyebo-kiryak*, *Sonwon-boryak*, wood block printing, royal family, genealogy

1. 緒言

1724년 8월에 31세로 즉위한 英祖는 재위 52년 동안에 28회에 걸쳐 「璿源系譜紀略」을 간행하였다. 이들 간본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4책본, 7책본, 8책본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수정 증보되었다.

「선원계보기략」이 간행되기 시작한 숙종대에 처음에는 1책, 2책의 형태로 완결본이 간행되다가 4책본으로 완성된 것이 ‘숙종45년본’부터이다. 이 판본은 간행 완료 후 바로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改張修正하여 ‘숙종46년본’으로 간행되었다.¹⁾ 이후 경종3년본을 포함하여 영조7년본까지 완결 4책본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들 4책본은 숙종45년본, 숙종46년본, 경종3년본, 영조1년본, 영조2년본, 영조3년본, 영조7년본의 7종인데, 경종3년본을 포함한 이전 3종은 5권4책본이고 영조1년본부터 영조7년본까지 4종은 6권4책본이다.²⁾ 경종3년본은 少論의 정국에서 간행되었고,³⁾ 후자의 4종에서 영조1년본과 영조2년본은 老論의 세력 하에서, 영조3년본과 영조7년본은 다시 소론의 政局主導 아래에서 간행되었다.⁴⁾

이에 우선 현재 그 실물을 찾아볼 수 없는 영조1년본에 한정하여, 이 판본이 당시 역사적으로 어떠한 배경에서 간행되고, 간행과정이 어떠한지를 주로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刊行 當時의 史的 背景

이 「璿源系譜紀略」英祖1년본은 영조 즉위년 10월 말부터 그 간행이 논의되

1)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0집(2000. 12), 153. 숙종46년본은 숙종45년본 완성 후 그 판본 간행의 都提調를 맡았던 延齡君의 타계 사실과 오류처 발견으로 개장 수정한 판본이다. 숙종 45년이 己亥年이고 숙종 46년이 庚子年이나, 숙종46년본을 두고 후일의 실록이나 의궤에서는 그 반사를 ‘기해반사’라 칭하고 있다.

2) 윤인현, “英祖朝 4冊本 「璿源系譜紀略」 板本考” 『書誌學研究』 제19집(2000. 6), 175.

3) 윤인현, “景宗朝 「璿源系譜紀略」 板本考,” 『행간윤영대박사화갑기념논문집』(1997. 11), 351.

4) 윤인현, “英祖朝 4冊本 「璿源系譜紀略」 板本考” 『書誌學研究』 제19집(2000. 6), 164.

어 원년 8월 말에 완성되기까지 약 10개월 남짓 걸렸다. 이 간행의 史的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의 사회상이 어떠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전개 되었으며, 이 판본에 수정 기록되어야 할 주요 왕족들의 생존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 당시의 사회상

영조는 즉위한 다음 날부터 右議政 李光佐와 戶曹判書 趙泰億에게 국가 경영에 대하여 하문하였는데 이광좌는 立志, 擇人 등을, 조태억은 敬天, 恤民, 節財用, 嚴宮禁, 恢言路 등 기본적인 治道를 아뢰었고, 며칠 후 吳命峻이 “현재 ‘私’가 모든 폐단을 야기하므로 임금께서는 ‘私’를 극복하시어 言事를 公正하게 하시라”고 아뢰었다.⁵⁾ 영조는 처음 등극하여 어떻게 하면 국정을 잘 살필 수 있는지를 파악하려 하였다.

그 이후에도 새로운 임금을 맞이한 신하와 백성은 영조에게 훌륭한 정치를 주문하고자 하였다. 즉위 이후 이 판본이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에 治道에 대한 劄子와 上疏가 수차례 있었다. 劄子로는 弘文館에서 敬天, 勤民, 納言, 懋學, 敦孝友, 崇節儉, 嚴宮禁, 卞邪正을 아뢰는 바가 있고,⁶⁾ 상소를 살펴보면 무려 9차에 걸쳐 大司憲 李明彥,⁷⁾ 正言 曹命教,⁸⁾ 檢討官 金弘錫,⁹⁾ 正言 金浩,¹⁰⁾ 前 正言 羅學川,¹¹⁾ 正言 韓師得,¹²⁾ 知中樞府事 權愔,¹³⁾ 幼學 成重殷¹⁴⁾ 등이 시책을 논하고

5) 『朝鮮王朝實錄』 英祖 1卷, 卽位年(1724 甲辰) 9月 1日.

6) 『朝鮮王朝實錄』 英祖 1卷, 卽位年(1724 甲辰) 9월 16일.

7) 『朝鮮王朝實錄』 英祖 1卷, 卽位年(1724 甲辰) 9월 24일.

8) 『朝鮮王朝實錄』 英祖 1卷, 卽位年(1724 甲辰) 10월 2일.

“正言曹命教上疏陳九條, 一曰敦聖孝, 二曰懋聖學, 三曰矯氣質, 四曰禮臣隣, 五曰審治體, 六曰振頹綱, 七曰收人才, 八曰得民心, 九曰省冗費.”

9) 『朝鮮王朝實錄』 英祖 1卷, 卽位年(1724 甲辰) 10월 3일.

『朝鮮王朝實錄』 英祖 1卷, 卽位年(1724 甲辰) 10월 22일.

10) 『朝鮮王朝實錄』 英祖 2卷, 卽位年(1724 甲辰) 11월 5일.

11) 『朝鮮王朝實錄』 英祖 2卷, 卽位年(1724 甲辰) 11월 19일.

12) 『朝鮮王朝實錄』 英祖 2卷, 卽位年(1724 甲辰) 12월 10일.

경종대에 延祔君(영조)에 대한 誣陷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등의 건의가 있었다.

그 내용에는 중복되는 사안이 많지만, 正言 曹命教가 敦聖孝, 懋聖學, 矯氣質, 禮臣隣, 審治體, 振頹綱, 收人才, 得民心, 省冗費 등 9조항을 진달하였는데, 다른 여러 상소들의 대체적인 핵심이 이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외에 등용된 자 중 책임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 책임자를 잘 가리고, 특히 守令, 營將을 잘 임명하고, 吏胥의 숫자를 줄이고, 朋比를 타파하고, 軍비를 축소하고, 산릉제전 등에 財用을 아끼고, 良役의 폐단을 바로 잡고, 장물을 엄하게 하고, 어사를 파견하고, 虛結 증가, 勒捧, 誅求, 戎備解弛, 科場의 私情 등의 폐단을 없애 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상과 같은 治道에 대한 차자와 상소 그리고 또 한편으로 承政院에서 당시의 時世에 대하여 나라가 困瘁하고, 國儲가 罄竭하고, 人心이 崩潰하고, 朝議가 乖張하고, 紀綱이 解弛하고, 걸치레만 성행하는 세태라고 지적하고 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임금뿐이라고 아뢰는가 하면,¹⁵⁾ 領議政 李光佐가 재정고갈을,¹⁶⁾ 檢討官 金弘錫이 空名帖의 폐단을¹⁷⁾ 아뢰고, 사대부들이 백성의 집을 함부로 점유하는 일이 많았고,¹⁸⁾ 관리가 빚 독촉으로 매질을 일삼아 백성의 부부가 자결하는¹⁹⁾ 등 時弊에 관한 기록들이 있어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영조가 즉위한 당시의 세태는 인재등용이 잘못되고, 吏胥가 과다하고, 붕비의 폐단이 많았으며, 재정이 고갈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역, 공명첩, 능봉, 주구, 허결 등의 폐단이 있는가 하면 사대부와 관리의 민폐가 자행되어 나라가 困瘁하고, 國儲가 罄竭하고, 人心이 崩潰하고, 朝議가 乖張하고, 紀綱이 解弛하고, 걸치레만 성행하는 등 治國이 어려운 사회상이었다.

13) 「朝鮮王朝實錄」英祖 2卷, 卽位年(1724 甲辰) 12월 18일.

14) 「朝鮮王朝實錄」英祖 3卷, 1年(1725 乙巳) 1월 20일.

15) 「朝鮮王朝實錄」英祖 1卷, 卽位年(1724 甲辰) 9월 16일.

16) 「朝鮮王朝實錄」英祖 1卷, 卽位年(1724 甲辰) 10월 20일.

17) 「朝鮮王朝實錄」英祖 1卷, 卽位年(1724 甲辰) 10월 22일.

18) 「朝鮮王朝實錄」英祖 1卷, 卽位年(1724 甲辰) 9월 24일.

「朝鮮王朝實錄」英祖 1卷, 卽位年(1724 甲辰) 10월 16일.

19) 「朝鮮王朝實錄」英祖 2卷, 卽位年(1724 甲辰) 11월 6일.

2.2 당시의 정치적 상황

당시의 정치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숙종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 숙종의 정유년(숙종 43년, 1717) 李頤命 독대로부터 당시 왕세자(경종)와 왕자 延祔君(영조)의 왕위 계승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경종이 즉위하자 소론의 趙重遇가 제기한 장희빈의 名號와 爵號 문제가 노론의 의지대로 처리되었고, 노론의 尹志述이 숙종 墓地文(노론 이이명이 작성함)에 장희빈에 대한 기록을 문제 삼는 등 노론과 소론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경종 원년에는 李廷燾가 연잉군의 왕세제 책봉 문제를 상소한 후, 경종의 윤허를 받는 과정에서 노론이 회의를 소집하고 소론이 불참한 가운데에서 처리된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이에 소론의 劉鳳輝가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오히려 노론의 뜻대로 그가 유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론의 위세는 경종 원년 10월 10일에 趙聖復을 통하여 연잉군의 대리청정을 상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²⁰⁾

이후에 노론과 소론의 각축 끝에 金一鏡, 朴弼夢, 李明誼, 李眞儒, 尹聖時, 鄭楷, 徐宗厦 등이 상소하여 노론 4대신 金昌集, 趙泰采, 李頤命, 李健命을 四凶이라 지칭하면서 개인별로 조목조목 논핵하였다.²¹⁾

이를 계기로 상소한 자들을 특별 제수하고, 숙종 묘지문을 노핵한 윤지술을 극형에 처하고 노론 4대신을 유배했다가 사사하였다. 반면에 소론의 崔奎瑞, 崔錫恒, 趙泰耆가 3정승이 되고 관서들도 소론으로 대거 기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종 원년(辛丑)과 경종 2년(壬寅)에 걸쳐 일어난 사화를 신임당화라 하는데 이 사건들을 겪고 소론이 정계에 부각되면서 尹宣舉, 尹拯 부자의 관작이 회복된 것이 경종 2년 8월의 일이고, 경종 3년 10월에 조태채의 발문을 실어 『璿源系譜紀略』 경종3년본을 간행하였다.²²⁾

20) 윤인현, “景宗朝『璿源系譜紀略』板本考,” 『행간윤영대박사화갑기념논문집』(1997. 11), 339.
21) 『朝鮮王朝實錄』景宗 5卷, 1年(1721 辛丑) 12월 6일.

“願殿下, 克追先大王奮發之威, 轉圜之德, 勿復因循, 亟行按治, 使四凶無得猖獗, 而群不逞有所懲畏焉.”

경종 4년 8월 말에 경종이 서거하고 延祔君이 창덕궁 인정문에서 즉위하니 그가 英祖이다. 왕자의 자격에서 등극을 하게 되면 전왕에 대한 예우와 아울러 왕의 주변 인물들의 작위 등이 변함은 당연한 이치다.

먼저 即位年 9월 초에는 경종의 謚號를 ‘德文翼武純仁宣孝’로, 廟號를 ‘景宗’으로 하고, 殿號는 ‘敬思’로 陵號는 ‘懿陵’으로 정하였다.²³⁾ 당시 영의정은 崔奎瑞였는데 9월 21일에 유봉휘를 우의정으로 삼고 우의정이었던 이광좌는 좌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요약하자면, 경종 원년 10월 이후 정국은 약 3년간 소론의 주도하에 흐르다가 영조가 즉위하자 사정은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를 왕세제로 책봉하게 하고 대리 청정으로 몰고 갔던 당은 노론이었고, 그에 제지를 가하고 辛壬黨禍를 있게 했던 당은 소론이었다.

영조 즉위년 11월에 金一鏡은 유배되었다가 익월에 陸虎龍과 함께 처형되었다. 원년 1월부터는 경종대의 유배되었던 자들을 석방하고 3월에는 노론대신의 관작을 회복시켰고 소론의 대신들은 축출되기 시작했다. 이들 인물 중에는 「선원 계보기략」에 수록되는 자가 많았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아래에서 즉위년 10월 25일에 제조 李肇의 요청으로 시작하여²⁴⁾ 원년 8월 28일에 李宜顯의 발문이 실린 「선원계보기략」을 완성하였다.²⁵⁾

요건대 영조가 즉위하자 경종조 신임당화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 소론이 失勢하고 노론이 득세한 상황에서 과거와 당시의 治罪와 復權에 따른 신분 변동사항을 수정하여 영조1년본 「선원계보기략」을 간행한 것이다.

22) 윤인현, “景宗朝「璿源系譜紀略」板本考,” 「행간윤영대박사화갑기념논문집」(1997. 11), 340-341.

23) 「朝鮮王朝實錄」英祖 1卷, 即位年(1724 甲辰) 9월 3일.
“上大行大王謚號曰德文翼武純仁宣孝, 廟號曰景宗, 殿號敬思, 陵號懿陵.”

24) 「朝鮮王朝實錄」英祖 1卷, 即位年(1724 甲辰) 10월 25일.
“宗簿提調李肇, 請修改璿源譜略, 上曰 內藏新件甚多, 非但浮費, 藏置亦難致敬. 此後則只改當改之板可也.”

25) 「朝鮮王朝實錄」英祖 7卷, 1年(1725 乙巳) 8월 27일.
“璿源譜略成. 初, 以癸卯譜略多舛, 特命釐正, 至是告成, 校正堂郎以下, 賞賜有差.”

<표 1> 숙종, 경종, 영조의 배우자와 그 자녀 사항

묘호	자녀수	배우자	자녀수	자녀의 출생 순서
숙종	6남 2녀	妃 仁敬王后 金氏	2녀	제1녀 조졸, 제2녀 조졸
		繼妃 仁顯王后 閔氏	無嗣	
		繼妃 仁元王后 金氏	無嗣	
		玉山府大嬪 張氏	2남	제1남 경종, 제2남 盛壽
		後宮 淑嬪 崔氏	3남	제3남 永壽, 제4남 영조, 제5남 조졸
		後宮 禎嬪 朴氏	1남	제6남 延齡君
경종	無嗣	妃 端懿王后 沈氏	無嗣	
		繼妃 宣懿王后 魚氏	無嗣	
영조	2남 12녀	妃 貞聖王后 徐氏	無嗣	
		繼妃 貞純王后 金氏	無嗣	
		後宮 靖嬪 李氏	1남2녀	제1남 眞宗, 제1녀 조졸, 제2녀 和順翁主
		後宮 暎嬪 李氏	1남6녀	제2남 莊祖, 제3녀 和平翁主, 제4녀 조졸 제5녀 조졸, 제6녀 조졸, 제7녀 和協翁主 제9녀 和緩翁主
		後宮 貴人 趙氏	2녀	제8녀 조졸, 제10녀 和柔翁主
		後宮 淑儀 文氏	2녀	제11녀 和寧翁主, 제12녀 和吉翁主

2.3 당시의 왕족 사정

숙종의妃로는 仁敬王后 金氏, 仁顯王后 閔氏, 仁元王后 金氏가 있었고, 嬪으로는 한 때妃에까지 올랐고 경종의 생모인 玉山府大嬪 張氏(張禧嬪)를 비롯하여 淑嬪 崔氏, 禎嬪 朴氏, 寧嬪 金氏²⁶⁾가 있었는데 이들 중 영조가 즉위할 당시까지 생존한 인물은 仁元王后 金氏와 寧嬪 金氏뿐이었다.

26) 金昌國의 여식으로 숙종의 후궁이었는데 기사환국 때 폐출되었다가 인형왕후가 복위될 때 복작되었고, 영조가 어렸을 적에 항상 어머니라고 일컬었다. 자식이 없어 『濬源系譜紀略』 상에는 기록이 없지만, 실록에 그 줄기가 보인다.

『朝鮮王朝實錄』 英祖 40卷 11年(1735 乙卯) 1월 12日.

“癸未 肅廟後宮寧嬪金氏卒。金氏都正昌國女也。選入後宮，肅廟禮待，異於他嬪御，上亦尊禮之，至是卒。上曰：先朝後宮，只餘一人。曾與仁顯聖母，同值己巳，而甲戌復位時，亦復爵矣。予幼時常母稱之，今聞其喪，不勝感懷。”

경종의 경우는 그가 즉위할 때 이미 첫 배우자인 端懿王后²⁷⁾가 세자빈이었을 적에 자식이 없이 33세의 나이로 타계하였고, 이어 14세에 세자빈으로 책봉된 宣懿王后²⁸⁾는 경종이 즉위할 당시 16세였으며, 자식이 없이 영조 6년 6월에 타계하여, 영조의 즉위 당시에는 그가 생존하고 있었다.

<표 2> 숙종, 경종, 영조, 진종, 장조 및 그 배우자들의 생몰연기와 향년

묘호	배우자	탄강연기	승하연기	향년	비고
숙종		현종 2년 8월	숙종 46년	60세	
	仁敬王后	현종 2년 9월	숙종 6년 10월	20세	
	仁顯王后	현종 8년 4월	숙종 27년 8월	35세	
	仁元王后	숙종 13년 9월	영조 33년 3월	71세	* 영조 원년시 생존
	玉山府大嬪		숙종 27년 10월		賜死
	淑嬪崔씨		숙종 44년 3월		
	禎嬪박씨		숙종 29년 7월		
경종		숙종 14년 10월	경종 4년	37세	
	端懿王后	숙종 12년 5월	숙종 44년 2월	33세	
	宣懿王后	숙종 31년 10월	영조 6년 6월	26세	* 영조 원년시 생존
영조		숙종 20년 9월	영조 52년 3월	83세	
	眞聖王后	숙종 18년 12월	영조 33년 2월	66세	* 영조 원년시 생존
	眞純王后	영조 21년 11월	순조 5년 정월	61세	영조 33년 왕비 책봉
진종		숙종 45년 2월	영조 4년 11월	10세	* 영조 원년시 생존
장조		영조 11년 정월	영조 38년 윤5월	28세	

영조는 淑嬪 崔氏의 所出로 숙종 12년(1686)에 출생하여 숙종 25년(1699)에 延祔君으로 봉해졌고, 부친인 숙종이 ‘養性軒’이라 賜號하였다. 즉위 당시 숙종의 후손으로 유일했다.²⁹⁾ 그는 잠저시에 부인 徐氏가 있었으나 後嗣가 없었고, 후일

27) 沈浩의 여식으로 숙종 12년(1686)에 나서 숙종 22년(1696)에 11세의 나이로 세자빈에 책봉되었다가 경종이 대리청정을 하던 숙종 44년((1718)에 33세의 나이로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

28) 魚有龜의 여식으로 숙종 31년(1705)에 나서 숙종 44년(1718) 14세에 세자빈에 책봉되고 경종이 즉위하면서 1720년 16세의 나이로 왕비에 진봉되었다가 영조 6년(1730) 26세에 후사가 없이 타계하였다.

29) 숙종은 6남2녀 8남매를 자녀로 두었으나, 장성하여 封爵된 자녀는 王世子(경종), 延祔君,

의 靖嬪 李氏를 妾室로 두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이 숙종 45년(1719)에 출생하여 영조 즉위년(1724) 11월에 敬義君에 봉해졌다가 영조 원년(1725) 2월 25일에 王世子로 책봉되고, 영조 3년에 후일의 孝純王后가 되는 趙氏³⁰⁾를 世子嬪으로 맞이하였으며 영조 4년(1728) 11월에 10세에 서거하여 후일에 眞宗으로 추존된다.

그리고 영조 원년 2월 18일에 靖嬪 李氏의 소출 제2왕녀를 和順翁主로 봉하였고,³¹⁾ 5월에 영조의 이복 아우인 연령군의 부인인 商山郡夫人 金氏가 타계하였다.³²⁾ 이러한 왕실 자손의 봉작, 책봉 사실이나 번고에 따른 사안들은 「선원계보기략」에 추록되고 수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요컨대 영조가 즉위할 즈음에 왕족의 사정은 숙종의 제2계비인 仁元王后 金氏, 경종의 비 宣懿王后, 영조의 잠저시 부인 徐氏,³³⁾ 妾室 李氏,³⁴⁾ 아들³⁵⁾이 생존하고 있었다. 또한 그 아들이 敬義君으로 封君되고 이어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왕녀가 和順翁主로 봉해지고, 商山郡夫人 金氏가 타계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선원계보기략」 수정의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

3. 刊行過程

이 「선원계보기략」 영조1년본의 간행은 즉위년 10월 26일에 宗簿寺 提調를 겸하고 있던 吏曹判書 李肇가 前板인 景宗3년본을 改修하기를 청함으로써 시작된다.

延齡君 세 아들뿐이었다. 仁敬王后 소탄의 두 딸과 玉山府大嬪 所出의 盛壽, 淑嬪 소출의 永壽(영조의 형), 작명도 못한 영조의 아우 등 2녀3남이 모두 조출하였다. 그나마 명빈 소출인 제6남 延齡君마저 숙종 45년(1719) 10월에 타계하였다.

30) 趙文命의 女.

31) 「朝鮮王朝實錄」 英祖 3卷, 1年(1725 乙巳) 2월 18일.
“封王女爲和順翁主.”

32) 「朝鮮王朝實錄」 英祖 6卷, 1年(1725 乙巳) 5월 7일.

33) 후일의 貞聖王后.

34) 후일의 靖嬪.

35) 후일의 敬義君, 眞宗.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왕실의 계보를 간략히 기록하는 『御牒』³⁶⁾을 필사하여 중부시와 외4처에 봉안한다.³⁷⁾ 이어 『선원계보기략』을 목판본으로 간행하는데, 경종3년본이 경종 3년 10월에 완성되었고 영조대의 간행을 최초로 운운한 것이 즉위년 10월이고 보면 그 시차는 약 2년에 불과하다.

이조판서 李肇가 그 간행의 일로 영조에게 아뢰면서, 전체적인 새로운 판각이 아니라 修改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영조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선원계보기략』은 한 번 간행하면 300여건³⁸⁾이 되고, 약 2년 정도 경과한 새 판본이 꺾내에도 많으니 꼭 고쳐야 할 張만 고쳐서 간행할 것을 명하였다.³⁹⁾

이에 李肇는 반사건을 모두 회수해서 改張하여 돌려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때 都提調 李光佐가 『譜略』⁴⁰⁾을 고치게 되면 序文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⁴¹⁾ 차제에 영조는 그의 부친 숙종이 賜號한 ‘養性軒’을 수록할 것을 요구하였다.⁴²⁾

36) 宗簿寺.(以下省略)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9. 甲辰 12월 3일. 張10. 12월 11일. “國朝御牒及譜略御牒修正事”로 보아 御牒이란 國朝御牒을 가리키고, 또한 譜略御牒이란 『璿源系譜紀略』의 ‘璿源先系’와 ‘璿源世系’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당시의 御牒은 현재 보이지 않으나, 1907-1910 사이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國朝御牒』 전반부 내용이 『璿源系譜紀略』의 ‘璿源先系’와 ‘璿源世系’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37)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1. 甲辰 10월 5일.
“本寺啓曰 大行大王諡號廟號陵號當寧嗣位 本廳及外四處奉安御牒中 依例修正以爲次第奉安之地何如 傳曰 允.”

38)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경종3년본 간행과정고,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7(October 2005), 163 참조.

실은 『璿源系譜紀略』, 경종3년본은 緞衣에 草注紙로 인출한 進上 進獻 奉安件은 모두 20건이며, 紙衣에 厚白紙로 인출한 頒賜本은 200건으로 총 220건 800책이 간행되었다.

39)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2-3. 甲辰 10월 26일.

40) 『선원계보기략』의 약칭. 『선원보략』이라고도 한다.

41)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2-3. 甲辰 10월 26일.

42) 영조는 『璿源系譜紀略』, 숙종45년본과 숙종46년본 간행시 延祜君으로서 당시 校正廳의 最高職인 都提調였었다. 선왕들의 기록 중 호를 기재한 왕은 太祖, 仁祖, 孝宗뿐인데, 이를 선례를 들어 말한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자신이 서술이었기에 숙종으로부터 특히 賜號 받은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그 정통성을

간행간격이 짧았던 선례로는 숙종5년본과 숙종7년본, 그리고 숙종26년본과 숙종28년본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前板의 시행착오를 수정하여 다시 만든 것인데, 후자인 숙종26년본과 숙종28년본의 관계가 기존의 판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변화된 부분만 수정할 계획으로 시작하고 약 2년의 간행간격을 보인 점에서 경종3년본과 영조1년본의 관계가 이와 더 유사하다. 다만 숙종26년본과 숙종28년본은 동일 王代의 일이고 경종3년본과 이 영조1년본은 王代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숙종28년본의 간행과정을 보면, 첫째 校正廳을 설치하고 행할 것인가 아니면 종부시에서 그냥 행할 것인가 하는 설정의 문제, 둘째 반사본의 환수 문제, 셋째 봉단절목과 응행절목 마련의 문제, 넷째 초초, 중초, 부판정서의 문제, 다섯째 판각과 인출의 문제, 여섯째 개장과 진상 및 세초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1 교정청 설정 이전의 작업

숙종26년본을 개장수정한 숙종28년본의 경우는 종부시에서 숙종에게 設廳의 여부를 묻고 교정청을 설치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영조 즉위년에는 국고가 고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정의 내용이 짧은 기간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정작업이 비교적 간단할 것으로 여기고 교정청을 설치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였다.

3.1.1 「어첩」의 수정과 「선원보략」 간행의 초기 계획

본고는 「선원계보기략」의 간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國朝御牒」이 이와 무관하지 않고, 종부시에서 먼저 「국조어첩」의 수정을 필두로 「보략어첩」을 수정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략의 자손록 수정에까지 확대되었기에 「국조어첩」과 「보략어첩」의 수정에서부터 기술하고자 한다.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조어첩」의 수정은 영조 즉위년 10월 5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였고⁴³⁾ 10월 20일에 서사관을 驪陵君 圻로 결정하였으며,⁴⁴⁾ 10월 26일에는 이미 어첩의 草本이 작성되었다.⁴⁵⁾ ‘보략어첩’의 수정은 그 해 10월 26일부터 시작하였다.⁴⁶⁾ 처음의 수정 내용은 「어첩」과 「보략」의 공통사항인 경종의 諡號, 廟號, 陵號, 영조의 王位 繼承 및 왕비와 왕자에 관한 기록 외에 왕자의 생모⁴⁷⁾의 職號, 그리고 「보략」의 마지막 범례 및 열성계서도의 마지막 부분이다.

「국조어첩」은 변화된 사항을 수정 첨입하여 正書해야 하는 필사본이고, ‘보략어첩’은 수정 각판하여 改張해야 하는 목판본 「선원계보기략」의 전반부 일부분이다.

「국조어첩」은 필사에 그치므로 정확한 내용 수정만 하면 그만이지만, 보략어첩은 수정후 판각과 개장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한 張을 고치더라도 225건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선원계보기략」은 우선 그 어첩만 수정하기로 하였다. 그런 결정을 하면서 서문과 발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단 경종의 因山이 끝나면 작업을 하기로 하고 당시 생존 인물로서 兩慈殿으로 칭하는 숙종의 제2계비 仁元王后와 경종의 계비 宣懿王后의 3년후 加上尊號를 수록해야 하니 그때에 발문도 작성하기로 한 것이 영조 즉위년 11월 1일이었다.⁴⁸⁾

「국조어첩」은 初草, 中草, 正書의 과정을 거치는데 初草가 끝난 후에 11월 3일 왕자를 敬義君으로 봉하였기에 11월 11일 경에는 중초에 반영해야 할 처지였고, ‘보략어첩’은 그 수정 사항을 파악한 결과 7張을 수정해서 개장해야 했다. 內入冊子 즉 進上件과 進獻件을 먼저 회수 수정하여 올리고, 그 후에 반사본을 회수하여 改張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으며,卒땀 후 바로 일을 시작하여 3년후 개수시에 跋文을 첨입하기로 재확인하였다.⁴⁹⁾

「御牒」과 「譜略」 수정 사항을 위해 宗簿寺는 영조 즉위년 12월 3일 예조에

43)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1. 甲辰 10월 5일.

44)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1. 甲辰 10월 20일.

45)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2. 甲辰 10월 26일.

46)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3. 甲辰 10월 26일.

47) 후일의 靖嬪李氏.

48)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8. 甲辰 11월 1일.

49)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8-9. 甲辰 11월 11일.

경종의 諡號, 廟號, 陵號, 春秋, 在位年紀, 陵寢의 地名과 里名, 坐向, 某陵某岡, 國葬日月 및 영조의 冠禮, 入學, 卽位年月日, 宮號, 門名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이틀 후에 그 회답을 받았다.⁵⁰⁾ 12월 11일에는 宗親府에 물어 다음날 영조의 初封君 年月日과 行冠禮 年月日를 報告받았는데,⁵¹⁾ 그로부터 나흘 후 12월 16일에 경종의 因山이 있었다.⁵²⁾ 이듬해 영조 원년 1월 10일에 「어첩」을 담을 櫃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이즈음에 두 가지 어첩은 이미 일단 완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영조 즉위년 10월 5일에 「국조어첩」 수정을 시작하여 10월 26일에 ‘보략어첩’을 수정하기로 했는데, 필사본인 「국조어첩」은 영조 원년 1월 10일 전후로 일단 완성을 보았다. 하지만 ‘보략어첩’은 목판본인 「선원계보기략」 전반부의 일부분으로서, 서문과 발문이 포함되어야 그 품격이 살아나는데, 우선 경종의 인산을 마치고 내입책자와 반사본을 회수하여 225건⁵³⁾에 각각 7張 정도의 改張을 함으로써 수정을 끝내고, 서문과 발문 그리고 兩慈殿 加上尊號는 3년 후에 첨입하기로 했다.

3.1.2 「선원계보기략」 간행과정의 혼란

기존의 목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7장 정도를 수정한다는 말은 전후면을 새긴 목판을 4판 정도를 수정하고 이를 인출하여 중초어람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부시가 1월9일에 奉安件⁵⁴⁾을 인출하기 위해 미리 草注紙, 眞墨, 黃蜜을 戶曹에 신청해 놓고, 1월 10일에 오히려 初草와 中草에 필요한 물품들을 신청하는⁵⁵⁾ 것으로 보아 한창 初中草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1월 11일

50)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9-10 甲辰 12월 3일. 12월 5일.

51)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10-11. 甲辰 12월 11-12일.

52) 「朝鮮王朝實錄」 英祖 2卷, 卽位年(1724 甲辰) 12월 16일.

53) 1건은 4책으로 총 900책이다. 1건 4책 중 제1책이 개장 대상이 된다.

54) 숙종26년본은 진상 30건, 진헌 20건, 봉안 5건을 간행했지만, 경종3년본과 영조1년본은 봉안건이 따로 없다. 여기서 봉안건이란 진상 진헌건을 칭하거나 아니면 호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 甘結을 보내어 1월 12일 平明에 中草 御覽건을 담을 精潔朱紅函 1部, 紅紬 袱⁵⁶⁾ 1건, 紅條索⁵⁷⁾ 1巨里,⁵⁸⁾ 架子 1部, 引路軍 4名을 대령하라고 했다.⁵⁹⁾ 즉 「선원보략」의 中草를 영조에게 보인 것이 1월 12일이다.

付板正書는 중초의 어람이 끝나고 관각하기 위하여 正書를 하는 것인데, 竹靑精潔白紙 10張 要請과 함께 목판 판목을 만들고 刻板에 필요한 인력과 일체의 물자를 마련하여⁶⁰⁾ 각판과 인출을 거쳐 1월 27일에 진상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1월 13일 이후 1월 25일까지 「선원보략」의 개장에 필요한 도침과정의 도구와 인력 및 진상에 필요한 물품들을 요청하면서 마무리를 위한 일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⁶¹⁾

한편 2월 10일까지 계묘 반사본을 회수하라는 공문을 漢城府와 五部에 보냈으니,⁶²⁾ 진상건, 진헌건, 봉안건을 먼저 진상하고 차후에 반사건을 회수하여 달라진 부분을 改張하여 다시 반사할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상 예정일이었던 1월 27일에 여러 관청에 보낸 甘結을 보면, 왕세자 책봉 후에 진상하는 것으로 영조의 결재가 났으니 다시 初草 厚白紙 1卷, 付板 精潔竹靑紙 30張, 自作板 20立 등의 갖가지 물자를 보내라는 기록⁶³⁾이 있고, 1월 25일 甘結에 진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시행하게 한 것으로 보아, 왕세자 책봉 후에 진상하라는 명령은 1월 25일과 1월 26일 사이에 하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왕세자의 책봉은 2월 25일이었으니⁶⁴⁾ 그 이후에 진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것이다.

2월에 들어 吏曹에서 왕비의 부친 徐宗悌의 贈職이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

55)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12-13. 乙巳 1월 10일.

56) 붉은 비단 보자기.

57) 붉은 새끼줄.

58) 길이의 단위. 거리. 10말에 해당함.

59)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13. 乙巳 1월 11일.

60)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13-15. 乙巳 1월 12-13일.

61)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14-18. 乙巳 1월 13-25일.

62)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15. 乙巳 1월 13일.

63)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18. 乙巳 1월 27일.

64) 「朝鮮王朝實錄」英祖 3卷, 1年(1725 乙巳) 2월 25일.

政府領議政 兼領經筵弘文館藝文官春秋館觀象監事 達成府院君'으로 결재가 났음을 알려 왔고, 이를 보충하여 진상하려고 2월 16일에 진상 吉日을 日官에게 추탁하게 한 즉, 2월 28일이 길하다고 하였는데,⁶⁵⁾ 돌연 2월 18일에 王女를 和順翁主로 封爵하였다.⁶⁶⁾ 이 때문에 진상일자에 대비하여 2월 20일을 목표로 인출을 마치려고 하였던 계획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일관에게 진상길일을 늦춰 잡도록 하였다.⁶⁷⁾

하지만 화순옹주 봉작사항을 급히 첩입하고, 다시 잡은 吉日이 오히려 하루 앞당겨진 2월 27일이었다. 궐내의 舊件을 꺼내어 合部하여 이날에 진상하기로 하는 한편 화순옹주의 봉작사항이 이미 '보략어첩'에 수정되었으니, 『국조어첩』도 수정하도록 하였다.⁶⁸⁾

게다가 갑자기 2월 25일에 왕자 敬義君을 왕세자로 책봉하여,⁶⁹⁾ 애초에 '보략어첩'의 7張만 改張하기로 하였던 것을 그의 추가 개장 및 子孫錄 第6篇⁷⁰⁾을 불가불 첩입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12장을 改張하여야 했다. 왕세자의 책봉례를 3월 20일에 행하였는데,⁷¹⁾ 이 날 이후에 진상하는 것으로 다시 연기되었다.

3월 16일에 중부시는 '보략어첩' 수정의 草本은 이미 睿覽을 거쳤고 왕세자 책봉례에 따른 第6篇도 草記를 마쳤는데, 20餘張을 제거했더니 참조표시를 한 '見字'가 어긋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支裔子孫 중에 罪死復爵 사항이 많아 이것들도 고쳐야 하겠다고 아뢰니 영조는 이를 허락하였다.⁷²⁾

동시에 왕세자 책봉례를 마치고 진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대진 進上件 緞衣 5件 紙衣 10件과 동궁 進獻件 緞衣 3件 紙衣 7件을 준비하기 위해 인출에 필요한 물자를 요청하고 진상례를 만들고 있었는데,⁷³⁾ 辛丑年(경종 원년, 1721) 이후 罪死,

65) 英宗 乙巳年 『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19. 乙巳 2월 16일.

66) 『朝鮮王朝實錄』 英祖 3卷, 1年(1725 乙巳) 2월 18일.

67) 英宗 乙巳年 『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19-20. 乙巳 2월 19일.

68) 英宗 乙巳年 『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20. 乙巳 2월 25일.

69) 『朝鮮王朝實錄』 英祖 3卷, 1年(1725 乙巳) 2월 25일.

70) 실제는 '睿源系譜紀略 卷之六'

71) 『朝鮮王朝實錄』 英祖 4卷, 1年(1725 乙巳) 3월 20일.

72) 英宗 乙巳年 『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21. 乙巳 3월 16일.

杖斃, 罪謫, 坐謫, 復爵, 削黜 인원에 대해서도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吏曹, 兵曹, 義禁府에 각각 그 名單을 요청하였다. 또 한편 ‘보략어첩’에 왕세자의 字와 誕降年月日, 堂號를 기재하였으니 「국조어첩」도 수정하라는 裁可가 떨어졌다.⁷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니 「보략」상의 관작을 고칠 것이 매우 많아지고 일이 복잡해졌다. 4월 3일에 결국 종부시의 堂上을 그 일에만 전념하게 하고, 보법에 정통한 宗臣, 旬管堂上, 교정관 2員, 서사총의 1員을 두도록 하면서 校正廳을 설치하게 되었다.⁷⁵⁾

요컨대, 初草와 中草를 거쳐 부판정서하여 판각, 인출하는데, 증초를 작성하여 어려운 것이 영조 원년 1월 12일이었다. 이를 부판정서하여 판각 인출하되 먼저 진상 전헌 봉안건만을 먼저 처리하여 진상하고, 후에 반사본을 회수하여 이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그 진상일자가 1월 27일이었지만, 왕세자의 책봉으로 자손록 第6篇를 추가해야 했고, 마침 왕비의 부친 徐宗悌의 贈職이 있어 2월 28일로 택일하였다. 진상일자 열흘 전에 화순옹주의 封爵이 있어 택일한 것이 오히려 하루 앞당겨진 2월 27일이었으나, 3월 20일 왕세자 책봉례 이후로 재차 연기되었다.

辛丑年 이후 罪死, 杖斃, 罪謫, 坐謫, 復爵, 削黜 인원에 대한 수정, 왕세자의 字와 탄강연월일 堂號를 수정하라는 裁可가 있어 그 간행의 일은 복잡한 상황에 빠지고 교정청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3.2 교정청 설치 이후의 작업

간단하게 ‘보략어첩’만 수정하려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간행의 일이 복잡하여 교정청을 설치해야만 했고, 이에 應行節目도 마련하여 효율적인 간행 작업을 진행하려고 기획하였다.

73)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21-22. 乙巳 3월 16-19일.

74)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23-24. 乙巳 3월 27일.

75)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24. 乙巳 4월 3일.

3.2.1 응행절목의 마련

교정청을 설치한 후, 堂上 4명, 都廳 1명, 郎廳 2명, 校正官 2명, 書寫忠義 2명을 두고, 譜法에 밝은 前 縣監 李益焞을 軍職을 주어 常任하게 했다.⁷⁶⁾ 그러면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8條目的의 응행절목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⁷⁾

1. 書寫를 위해 加出한 忠義衛 1인은 進階와 같이 軍職冠帶를 주어 常勤하게 하되, 本寺의 忠義衛 1인과 함께 入會하여 일한다.
2. 本청 堂上, 낭청이 쓸 印信 각 1顆를 해당부서로부터 受領한다.
3. 本청 堂上, 낭청, 교정관은 祭官에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公會에 참석하지 않되, 服制式暇 없이 公務를 보게 한다.
4. 書吏, 庫子, 司令 등은 中부서 員役으로 맡게 하고, 兼察守直軍士 1명, 茶母 1명을 該曹로 하여금 일을 마칠 때까지 定送한다.
5. 本청 堂上은 2일 간격으로 出勤하고, 道청, 낭청, 교정관은 매일 出勤하되, 매월 末日에 出勤 여부에 관한 單자를 올린다.
6. 필요한 板子是 進階에 따라 해당 부서가 進排하도록 하며, 公事白休紙는 매달 2斤씩, 황필 5柄, 進묵 5丁도 해당 부서가 進排하도록 한다.
7. 冊子에 쓰이는 紙地, 筆墨, 기타 상용비품, 鋪陳 등은 畿甸年의 例에 따라 각 해당부서가 進排하도록 한다.
8. 미진한 조항은 앞으로 마련하도록 한다.

원활하고 조직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堂上 낭청 交正官의 制限 차출금지와 公회불참, 서사층의 2인과 書吏, 庫子, 司令, 兼察守直軍士, 茶母 등의 인력 확보, 出勤부 작성, 堂上和 낭청의 印信 및 판자등 필요물자 제공에 관하여 定하였다.

76)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25. 乙巳 4월.

77)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26. 乙巳 4월.

3.2.2 신분변동에 따른 자손록의 수정

3월 27일에 이조, 병조, 의금부에 각각 辛丑年 이후 罪死, 杖斃, 罪謫, 坐謫, 復爵, 削黜 인원의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회신한 기록의 명단은 보이지 않는다. 4월의 기록을 보면 壬寅年 이상의 명단은 이미 받았다고 하고 계묘년 이후의 명단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이는 辛壬黨禍時의 治罪, 伸冤의 명단은 이미 받았으며 그 이후의 명단을 요구하는 것이니, 영조 즉위년 12월에 김일경과 목호룡의 처형을 필두로 치죄가 있었던 것과 원년 1월부터 경종대의 유배되었던 자들을 석방하고 3월에는 노론대신의 관작을 회복시킨 것과 소론의 대신들을 축출한 명단 등을 보내 달라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계묘 이전에 정배되었다가 방면된 자 39명, 계묘 이후에 정배되었다가 방면된 자 67명, 현재 유배중인 자 33명, 정배되었다가 죽은 후 방면된 자 6명, 正刑을 받은 자 5명, 物故杖斃된 자 2명, 김일경에 연좌되어 정배된 자 13명 등 도합 165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⁷⁸⁾ 이들 중에 「보략」에 수록된 자를 모두 수정하려면 몇 장을 改張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5월 26일의 감결에 개장의 수가 거의 백여장이 되니 판자 50호를 잘 골라서 보내라⁷⁹⁾고 한 것을 보아 목판은 양면으로 새긴 것으로 추정되고 작업량은 급증한 것으로 짐작된다.

3.2.3 판각

5월 27일에는 목판을 새기는 일이 바빠서 교서관과 관상감에 각수 7명, 北漢僧將에게 각수 10명, 충청도에 각수 2명을 6월 10일까지, 경상도와 전라도는 6월 15일까지 각 4명씩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⁸⁰⁾ 6월 18일에 판각의 일이 생각보다 증가하여 다시 各道에 공문을 보내 각도에서 5명을 보내되 전라도는 7월 5일

78) 宗簿寺.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규14017). 乙巳 4월 일.

79)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40. 乙巳 5월 26일.

80)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41-42. 乙巳 5월 27일.

까지, 충청도와 강원도는 6월 末日까지로 기한을 정하고 굳이 솜씨좋은 刻手를 차출하라 하고 솜씨가 좋지 않으면 色吏를 문책하겠다⁸¹⁾고 한 것으로 보아 일이 너무 바쁘거나 기존의 각수 중에 솜씨가 부족한 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여하간 5월 말부터 6월을 거쳐, 일러도 7월 초순까지는 대대적인 판각 또는 보공 작업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월 28일에는 吏曹와 兵曹에 신축년 이후에 贈諡, 贈職, 削職, 削黜, 復官爵된 인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내라고 했는데, 이에 吏曹는 罪死, 杖斃, 罪謫, 坐謫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여 의금부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 復爵 인원 19명의 명단만 보고하였으며, 兵曹는 武臣으로서 不服死者만 겨우 왕명으로 판각을 회복하였으므로 職과 姓名을 공문에 後錄하여 보낸다고 하면서 9명의 명단을 보고하였다.⁸²⁾ 이미 3월 말에 이러한 공문의 왕래가 있었는데, 또 다시 보낸 것은 답신의 명단 작성 형식으로 보아 교정청에서 앞서 수령하였던 명단 중 「보략」에 올라가는 인원만 뽑아서 그 명단을 양처에 보내어, 그 贈諡와 贈職 등의 사항을 기재해서 보내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3.2.4 중초어람

3월 말경에 죄사복작자들의 명단을 받기 시작하여 그 개정의 일이 호번하다 판단하고 4월 3일에 교정청을 설치한 후, 이미 3월 중에 받은 명단을 4, 5, 6월에 걸쳐 수정하면서, 필요에 따라 죄사복작자의 추가 명단을 요청하여 판각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6월 3일, 6일, 25일, 26일, 29일에 걸쳐 어람 중초에 소용되는 물자들을 수시로 신청하면서 6월 6일에 이조에 故判書 李師命 복작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⁸³⁾ 6월 24일에 종친부에 연락하여 왕세자 初封君 연월일자를 확인하면서 마지막까지 완성도를 높이려 노력하였다.⁸⁴⁾

81)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46. 乙巳 6월 18일.

82)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42-43. 乙巳 5월 28일.

83)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45. 乙巳 6월 6일.

7월 2일에 중초어람을 거쳤는데⁸⁵⁾ 원래 중초어람은 初草를 마치고 수정하여 다시 正書를 하여 中草를 만들어 그 필사본으로 어람을 마치는데, 중초 어람용 인출에 필요한 물자를 신청한 것을 보면, 복잡 다단했던 간행과정에서 이번 중초 어람은 인출을 하여 간본의 행태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3.2.5 반사

반사에 관련하여서는 영조 원년(1725) 1월 13일에 이미 반사본 200건을 거두어서 개장하여 반포하기로 하고 漢城府와 五部에 공문을 보내어 계묘년에 받은 「선원보략」을 첫 권만 모아서 2월 10일까지 종부시로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다.⁸⁶⁾

숙종46년본은 어람용 15건, 휘람용 10건, 반사용 200건으로 총 225건 1,000책을 간행했고,⁸⁷⁾ 경종3년본(계묘)도 동일한 수량을 간행하였다.⁸⁸⁾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종3년본의 어람건, 휘람건, 반사건 등 225건만을 대상으로 회수하여 수정 개장하여야 하지만, 5월 16일 晝講에 入侍한 侍讀官 李箕鏞이 숙종46년본을 반사받았다가 공문이 와서 반납했는데 그 후에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⁸⁹⁾ 아뢴 것을 계기로 숙종46본의 반사보략도 회수하여 세초하고 대신에 새것으로 환급하게 했다.⁹⁰⁾

改張補孔하여 돌려주기로 한 경종3년 반사본이 7월 10일까지도 회수가 덜 되어 7월 13일까지 교정청으로 모아 오라고 東西南北中 五部에 다시 명령했다.⁹¹⁾ 7월

84)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47. 乙巳 6월 24일.

85) 「承政院日記」 英祖 元年(1725 乙巳) 6월 25일.

86)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15. 乙巳 1월 13일.

87)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0집(2000. 12), 151. 이 논고에서 숙종45년(숙종 46)본을 총 201건 804책 간행한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계산 착오로 총 225건 1,000책으로 수정해야 한다.

88)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경종3년본 간행과정고.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7(October 2005) 161.

89)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38. 乙巳 5월 16일.

90)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40-41. 乙巳 5월 20일.

24일 감결에 의하면 인출에 필요한 재료를 신청하면서 乙巳 반사 200건, 己亥 반사 55건, 癸卯 반사 200건으로 정해놓고 있었다.⁹²⁾ 하지만 최종 환급기와 반사기를 보면 ‘癸卯譜略 細補還給記’에는 승정원, 홍문관, 좌의정 최석항 등 습 155처, ‘己亥頒賜 洗草還給記’에는 領府事 李滂 등 습 55명, ‘乙巳譜略 頒賜記’에는 ‘宣廟以下 大君王子公翁主 長派’에 貞明公主 嫡長孫 左尹 洪錫輔 등 습 21명, 外朝에 奉朝賀 崔奎瑞, 大司成 李喬岳 등 습 173명, 도합 194명을 기록하고 있다.⁹³⁾

<표 3> 「선원계보기략」 영조 1년 반사 내역

판본	간행	回收	반사	비고
숙종46년본 (일명, 기해본)	진상진헌건 25건 반사건 200건	55건	55건* #	세초후 신건 반사 경종3년본 간행시 164건 회수, 개장반사
경종3년본	진상진헌 25건 반사건 200건	155건	155건*	수정 개장 반사 회수건 중에는 숙종46년본을 개장한 경종3년본도 있음.
영조1년본	진상진헌 25건 # 반사 200건 #		194건*	진상진헌 25건* 반사본 여분 6건*
계			414건	영조1년본 445건(*표시 습) 당시 新刊은 280건(#표시 습)

요컨대 <표 3>에서 보듯이, 숙종46년본은 55건을 회수하여 세초하고 영조1년본 新件으로 반사하였고, 경종3년본은 155건을 회수하여 개장해서 환급했으며, 영조1년본은 기본적으로 진상진헌건 25건과 반사본 200건으로 모두 225건을 간행하였으니, 영조1년본은 445건이 간행된 셈이다. 1건이 4책 완질이므로 이를 책수로 계산하면 1,980책에 이른다.

91)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63. 乙巳 7월 10일.

92)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71. 乙巳 7월 24일.

93)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88-97.

3.2.6 간행 인력

「선원계보기략」영조1년본의 간행에 참여한 인력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표 4> 「璿源系譜紀略」영조1년본 관련 校正廳 別單

역할		직함 및 성명	업무기간(전체일수)	업무일수	
國朝御牒	書寫官	驪陵君			
		西平君 橈			
璿源系譜紀略	提調	礪城君 楫	4/19-4/25(7)	1	
		刑曹判書 金興慶	4/19-6/5(47)	3	
		司憲府大司憲 金取魯	6/9-6/19(11)	0	
		議政府右參贊 李秉常	6/19-6/22(4)	0	
		漢城府左尹 洪錫輔	6/22-8/28(67)	18	
	旬管堂上	西平君 橈	4/19-8/25(127)	21	
		咸平君 泓	4/19-8/28(130)	17	
	都廳	宗簿寺正 李浣	4/19-5/6(28)	4	
		宗簿寺正 李聖龍	5/26-6/13(18)	0	
		宗簿寺正 李秉晉	6/26-8/26(61)	46	
	璿源系譜紀略	校正官	行夏原守 杞	4/19-8/28(130)	85
			星昌君 濡	4/19-8/28(130)	94
郎廳		宗簿寺主簿 黃有牧	4/19-8/28(130)	8	
		宗簿寺主簿 李秉成	6/29-7/7(9)	27	
		宗簿寺主簿 李益燭 ⁹⁴⁾	4/22-7/14(83) 7/14-8/28(45)	48 30	
		宗簿寺直長 尹瀟	4/19-7/28(100)	53	
		宗簿寺主簿 尹世顯	7/29-8/28(30)	25	
書寫忠義			李囿澤	4/19-8/28(130)	99
			沈鉉	4/19-8/28(130)	95
跋文製述官		行吏曹判書 李宜顯			

94)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84. 乙巳 8월 29일.

“郎廳 宗簿寺主簿 李益燭 自四月二十二日 付軍職 七月十四日至 實仕四十八日 同月十四日 政除授本職 八月二十八日至 實仕 三十日 合實仕八十六日.”

李益燭은 郎廳이 될 당시 副司果였는데 도중에 7월 14일부터 宗簿寺 主簿로 된 것으로 보인다. 實仕의 日數가 합하여 78일인데, 86일로 기재한 것은 오류인지 알 길이 없다.

이들에게 褒賞하기 위해 영조가 지시하여 교정청에서 그 명단을 작성했는데, 교정청 설정 이후의 업무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행정직은 <표 4>에서 보듯이 「국조어첩」 서사관을 제외하면 「선원계보기략」에 참여한 인원이 20명이다.

「국조어첩」의 書寫는 驪陵君과 西平君 橈이 담당하였다. 「선원계보기략」의 완성을 위해 그 跋文은 李宜顯이 製述하였고, 提調는 礪城君 楫, 형조판서 金興慶, 사헌부 金取魯, 의정부우참찬 李秉常, 한성부윤 洪錫輔가 맡았는데 4월 19일부터 7일간은 여성군과 김홍경 2인이 제조였으며, 그 이후 6월 5일까지 40일간은 김홍경 혼자 제조였으며, 3일간 공석이었던가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간은 金取魯 1인,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4일간은 李秉常 1인, 6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67일간은 홍석보 1인이 제조를 맡아, 최초 7일간과 교체되는 날들에 2인이 담당했던 것만 제외하면 제조는 1인이 담당하였다.

甸管堂上은 4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西平君과 咸平君 2인이, 그 이후 8월 28일까지 3일간은 함평군 1인이 담당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2인이 구관당상직을 수행했다. 都廳은 宗簿寺正 李浣, 李聖龍, 李彙晉⁹⁵⁾이 각각 기간에 따라 1인이 맡았는데,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19일간과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12일간은 공석이었다.

校正官은 行夏原守 杞와 星昌君 濡 2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였다. 낭청은 宗簿寺主簿 黃有牧, 李秉成, 李益燭, 尹瀟, 尹世顯이 맡았는데, 처음 4월 19일부터는 황유목, 윤숙 2인이 맡고, 4월 22일부터 이익경이 참여하여 3인이 담당하다가 윤숙은 7월 28일에 증도하차하고, 7월 29일부터 마지막 30일간은 윤세현이 대신하였고,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은 이병성이 합류한 바 있으니 대체로 낭청은 3인이었다. 書寫忠義는 李圉澤, 沈鉞 2인이었다.

요컨대 교정청의 행정 조직은 제조 1인, 구관당상 2인, 도청 1인, 교정관 2인, 낭청 3인, 서사총의 2인이 定員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95)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60. 乙巳 7월 2일. 都廳 李聖龍을 대신하여 宗簿寺正 李彙晉을 都廳으로 삼았다.

<표 5> 「선원계보기략」 영조1년본 校正廳 員役 등 別單

	대상업무	역할과 인명
1등 (81명)	譜略御牒 및 題目書寫	寫字官 洪德基
	跋文書寫	寫字官 李春華
	譜略御牒	校正唱准 宋世熙, 李碩老
		監董算員 李昌瑞
	譜略書寫	寫字官 洪億基 金泰熙 李廷馥
		次知唱准 金德明
		分類唱准 金世郁
	癸卯譜略細補	唱准 梁奎星 朴弘濟 河挺龜 韓德基 金是宣
		畫員 朴秀章
		書吏 徐挺翼 등 9인
		庫子 池達河 등 2명
	使令 韓元起 등 12명	
	粧册匠 朴有信 등 12명	
	刻手 李永立 등 30명	
2등 (28명)		豆錫匠 張重先 등 2명
		印出匠 趙先伊 등 14명
		小木匠 禹戒俊 등 5명
		蹄刻匠 吳大興 등 5명
		木手 金聖振 등 2명
3등 (29명)		多繪匠 劉六江 등 2명
		磨鏡匠 安莫石
		磨板軍 一千 등 3명
		紙匠 金二軍 등 2명
		使喚軍 億萬 등 2명
		柒匠 金光澤 등 3명
		小引鋸 南金太 등 2명
		銀匠 金二同
		匙匠 方時同
		鑄匠 金丁丑
		穿穴匠 金貴男
		針線婢 萬愛 등 4명
		大引鋸 高萬希 등 5명
		屏風匠 崔碩山
	연인원 138명	

기술직은 <표 5>와 같이 3등급으로 나누었는데, 1등급은 寫字官과 唱准, 畫員, 書吏, 庫子, 使令, 粧册匠, 刻手 등으로 81명이 참여했고, 2등급은 豆錫匠, 印出匠, 小木匠, 蹄刻匠, 木手 등으로 28명이 참여하였으며, 3등급은 多繪匠, 磨鏡匠, 磨板軍, 紙匠, 使喚軍, 柒匠, 小引鋸, 銀匠, 匙匠, 鑄匠, 穿穴匠, 針線婢, 大引鋸, 屏風匠 등으로 29명이 참여하여 기술직은 138명이 참여했으니, 행정직과 기술직을 합하면 158명이 투입된 것이다. 이 기록에는 각수가 30명으로 나타나지만 6월 29일 호조로 보낸 공문을 보면 각수 40명에 해당하는 料米를 신청하고 있다.⁹⁶⁾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교정청 설청 이전의 업무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3.2.7 진상 및 세초와 철국

영조 원년 8월 28일에 大殿御覽 15건은 단의 5건, 지의 10건을 봉진하고 世子宮徽覽 10건은 단의 3건, 지의 7건을 진헌하는 進上儀式을 치렀다.⁹⁷⁾ 이 판본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初草와 御覽中草 책자, 그리고 경종3년본 수정 개장후 발생한 前板의 冊紙를 교정청 당상 이하가 彰義門 밖의 遮日岩에 가서 洗草한 후 撤局함으로써⁹⁸⁾ 그 간행의 일을 완결하였다.

그 이후에 <표 5>와 같이 등급별로 포상을 하되, 영조가 포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자도 별도로 포상을 하였다.

4. 結 言

영조가 즉위한 당시의 세태는 인재등용에 불만이 많았고, 吏胥가 과다하고,

96)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53. 乙巳 6월 29일.

97)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81. 乙巳 8월 20일.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83. 乙巳 8월 28일.

98)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張82. 乙巳 8월 28일.

붕비의 폐단이 많았으며, 재정이 고갈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역, 공명첩, 능봉, 주구, 허결 등의 폐단이 있는가 하면 사대부와 관리의 민폐가 자행되어 나라가 困瘁하고, 國儲가罄竭하고, 人心이崩潰하고, 朝議가乖張하고, 紀綱이解弛하고, 걸치레만 성행하는 등 治國이 어려운 사회상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영조가 즉위하자 경종조 신임당화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 소론이 失勢하고 노론이 득세하고 있었다.

왕실의 사정은 仁元王后와 宣懿王后, 후일의 貞聖王后, 후일의 靖嬪, 후일의 敬義君이 되는 王子 등이 생존하고 있었고, 「선원계보기략」을 간행하는 과정에 敬義君으로의 封君과 그의 왕세자 책봉, 和順翁主의 봉작이 있었다.

영조 즉위년 10월 26일에 ‘보략어첩’을 수정하기 시작했는데, ‘보략어첩’은 경종의 인산후 내입책자와 반사본을 회수하여 각각 7張 정도를 改張하고, 서문과 발문, 兩慈殿 加上尊號는 3년 후에 첩입하기로 첫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初草, 中草, 부판정서, 판각, 인출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조 원년 1월 12일에 중초어람을 하였고, 이를 부판정서하여 판각 인출하되 먼저 진상 친헌 봉안건만을 먼저 진상하고, 후에 반사본을 회수하여 개장하기로 하였다.

진상일자가 1월 27일에서 왕세자의 책봉과 徐宗悌의 贈職이 있어 2월 28일로, 화순옹주의 封爵이 있어 2월 27일로 재수정되었다가 3월 20일 왕세자 책봉례 이후로 미루어졌다.

이러한 와중에 辛丑年 이후 罪死, 杖斃, 罪謫, 坐謫, 復爵, 削黜 사항과 왕세자의 字와 誕降年月日, 堂號 수정으로 간행의 일은 복잡한 상황에 빠지고 교정청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4월 3일에 교정청을 설치한 후 응행절목을 만들고, 계묘 이전과 이후에 신본 변동자 165명을 대상으로 자손록 수정을 가하였다. 5월 말부터 7월 초순까지 대대적인 판각, 보공작업이 진행되었고, 6월 중에도 이사명 복작 사실 여부와 왕세자 초봉균연월일자를 확인하면서 수정을 병행하여 7월 2일에 간본의 형태로 중초어람을 거쳤다.

숙종46년본은 55건을 회수하여 세초하고 영조1년본 新件으로 반사하였고, 경

종3년본은 155건을 회수하여 개장해서 환급했으며, 영조1년본은 기본적으로 진상진헌건 25건과 반사본 200건으로 모두 225건을 간행하였으니, 영조1년본은 445건이 간행된 셈이다.

이 판본을 완성하기 위해 교정청의 행정 조직은 제조 1인, 구관당상 2인, 도청 1인, 교정관 2인, 낭청 3인, 서사층의 2인으로 구성되었고, 그 행정직 20명과 寫字官 등 기술직 138명이 참여하여 모두 158명이 투입되었다.

영조 즉위년 10월 26일에 시작하여, 신분변동자 수정의 일이 호변하여 영조 원년 4월 3일에 교정청을 설치하고 8월 28일에 완성을 본 것이 이의현의 발문을 실은 「선원계보기략」 영조1년본이다.

<참고문헌>

宗簿寺. 英宗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藏 2-3838, M35-543).

宗簿寺. 乙巳年 璿源譜略改修時儀軌(규14017).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윤인현. “「璿源系譜紀略」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0집(2000. 12).

윤인현. “英祖朝 4冊本 「璿源系譜紀略」板本考.” 『書誌學研究』 제19집(2000. 6).

윤인현. “景宗朝 「璿源系譜紀略」板本考.” 『행간운영대박사화갑기념논문집』(1997. 11).

윤인현. “英祖朝 4冊本 「璿源系譜紀略」板本考.” 『書誌學研究』 제19집(2000. 6).

윤인현. 「璿源系譜紀略」경종3년본 간행과정고.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7(October 2005).